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19일 경찰공무원 2차

2020. 09.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7.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간혹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뒷산에 오른다. 산에 ㉢오르 내리는 동안 뒤섞여 있는 생각들이 정리되곤 한다. 나에게 뒷산은 등직한 ㉣형 같다.

- ① ㉠: ‘-ㄹ지’는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해야 한다.
- ② ㉡: ‘-마다’는 조사이기 때문에 ‘때’와 ‘마다’를 붙여 ‘때마다’로 수정해야 한다.
- ③ ㉢: ‘오르내리-’는 두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오르-’와 ‘내리-’를 붙여 ‘오르내리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 ④ ㉣: ‘같다’는 조사이기 때문에 ‘형’과 ‘같다’를 붙여 ‘형같다’로 수정해야 한다.

8. 다음 <보기>의 ㉠~㉢에 대한 높임 표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영이: 철수야, 선생님께서 내일 오전에 ㉠오시라고 하셔.
철수: 왜? 무슨 일이 있어?
영이: 선생님이 너에게 ㉡물을 일이 있다고 ㉢하셔.
철수: 언제 가면 돼?
영이: 몰라.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

- ① ㉠: 서술어의 주체가 ‘철수’이므로 ‘오라고’로 고쳐야 한다.
- ② ㉡: 서술어의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물으실’로 고쳐야 한다.
- ③ ㉢: 인용 동사 ‘하다’의 주체가 ‘철수’이므로 ‘해’로 고쳐야 한다.
- ④ ㉣: 서술어의 객체가 ‘선생님’이므로 ‘여쭙봐’로 고쳐야 한다.

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을 문장이라 한다. 그런데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이때 필수적 문장 성분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① 형은 아빠와 많이 닮았다.
- ② 누나는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 ③ 나는 종일 집에서 동생과 놀았다.
- ④ 그녀는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여겼다.

10. 다음 <보기>는 옳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옳바르지 않은 문장의 유형으로는, ㉠문장 성분끼리 호응하지 않은 경우, 문장의 성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된 경우, ㉢중의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조사나 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 ① ㉠: 그날 밤중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뭇잎이었다.
- ②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 ③ ㉢: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 ④ ㉣: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11. 다음 (가)~(다)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거실은 초록색 계열의 파스텔 톤으로 정돈했는데 초록색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침실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연한 보라색으로 꾸몄고 침실 한편에는 라벤더 화분을 놓아두었다.
(나) 색채는 직관적인 의미나 느낌을 전달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이며 사람의 감정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를 활용해 최근 새로 단장한 친구의 집을 둘러보았다.
(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보라색이 명상과 자기 성찰을 자극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 공부방은 노란색을 바탕으로 꾸몄는데 노란색은 집중력을 높이고 에너지가 솟아나도록 도와준다고 하여 특별히 선택한 색이라고 한다.

- ① (가) - (나) - (다)
- ② (나) - (가) - (다)
- ③ (가) - (다) - (나)
- ④ (나) - (다) - (가)

12.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카슨은 1958년, 조류학자이자 친구인 허킨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편지는 정부가 모기를 방제하기 위해 숲속에 디디티(DDT)를 살포한 이후 자신이 기르던 많은 새들이 죽었고, 이에 당국에 항의했지만 당국은 디디티가 동물에 무해하다며, 자신의 항의를 묵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카슨은 너무나 손쉽게 널리 사용되는 바로 이 디디티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자 결심한다. 카슨의 “침묵의 봄”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책이다.

- ①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② 사실과 주장을 주의하며 읽는다.
- ③ 정서적이거나 공감이 되는 부분을 찾아 읽는다.
- ④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읽는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19일 경찰공무원 2차

2020. 09.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 ① 1인칭의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역설적인 시적 논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실에서 삶의 본질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 ④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한다.

14.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 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인물 간의 극적 갈등이 시작된다.
- ② 여정을 따라 등장인물의 의식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특정 시대의 소재를 등장시켜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각종 문장부호의 사용을 통해 특정 부분을 주목하게 하고 있다.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릿골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잠시 잠깐 임 그리워서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 ① 우리 민족의 삶을 노래한 문학이다.
- ② 가창 과정에서 특정 후렴구가 발달했다.
- ③ 일상어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골계미와 같은 판소리의 미학적 요소를 담아내고자 했다.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사또 들어가 단좌하여 좌우를 살펴보니, 당상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양양할 제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모 떨어진 개상판에 닥채 저분,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 한 대 먹고지고.” “다라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 차운(次韻)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운봉이 운을 낼 제, 높을 고(高)자, 기름 고(膏)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 제, 어사또 하는 말이, “걸인도 어려서 추구권(抽句卷)이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주효를 포식하고 그저 가기 무렵하니 차운 한 수 하사이다.”

운봉이 반겨 들고 필연을 내어 주니 좌중이 다 못하여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거다.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측루낙시(燭淚落時)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라.”

이 글 뜻은 “(㉠),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은 몰라보고 운봉이 이 글을 보며 내념(內念)에, “아뿔싸, 일이 났다.”

1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당대 사회의 현실 고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④ 언어 유희적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0. 09.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7. ㉠과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더라.
②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탄식소리 높았더라.
③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삶이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칭찬소리 높았더라.
④ ㉠: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희망이요,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찬양소리 높았더라.

18.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양의 유토피아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유형 유토피아는 중국의 시인 도연명(陶淵明)의 소설체 산문 ‘도화원기’에 등장한다. 무릉 땅에 사는 어부가 강물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는데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을 지나자 산의 막다른 곳에서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을 통과하니 별천지가 전개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 나타났다. 어부는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그는 나중에 다시 찾아갈 생각으로 산길에 표시를 해 놓았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 표식이 모두 없어져 결국 []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 ① 安分知足 ② 簞瓢陋巷 ③ 武陵桃源 ④ 風月主人

19. 다음 글의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는 지식의 양이 한정적이고 그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며, 정전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낭독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독서를 중시했다. 근대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 생산되고 대중 교육이 실시되어 독서가 보편화되면서, 목독이 일반화되고 속독과 다독이 강조되었다. 오늘날에는 전자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독서 문화가 더욱 다양해졌다.

과거에는 유교 경전이나 모범적인 글인 정전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관습적 글쓰기가 강조되었다. 근대 이후 전문 작가에 의한 글쓰기가 이루어졌으며, 창의적 글쓰기를 강조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독자와 작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집단적 글쓰기 등 새로운 글쓰기 양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 ① 시대 변화에 따른 글쓰기 관습의 변화
②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독서 문화의 변화
③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글쓰기 방식의 변화
④ 과거와 현재의 독서 방식에 따른 독서 가치의 변화

2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설. 울대 군중에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화광이 충천하니, 부인이 계화를 명하여 부적을 던지고, 왼손에 홍화선을 들고,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 실을 매어 화염 중에 던지니, 문득 피화당으로부터 큰바람이 일며 도리어 오랑캐 중으로 불길이 일며 오랑캐 군사가 불 속에 들어 천지를 분변치 못하니 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라. 울대 대경하여 양천탄식하기를, “기병하여 조선에 왔으나 이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를 뵈오리오.” 하더라.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드러낸다.
②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③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니고 있어 영웅소설로 분류되고 있다.
④ 역사적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볼 수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19일 경찰공무원 2차

2020. 09.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① 껌질채→껌질째

명사 ‘껌질’ 뒤에 붙어,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째’가 적절하다.

② 모르는 채를 → 모르는 체를

관형사형 어미 ‘-는’ 뒤에 쓰여,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의미하는 의존명사 ‘채’가 적절하다.

③ 기대앓은 채로 → 기대앓은 채로

‘-은/는 채로’ 구성으로 쓰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채’가 적절하다.

07 ④ 어문규정-한글맞춤법: 띄어쓰기

④ ㉔: ‘같다’는 조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므로 띄어 쓴다. 즉 ‘형(과) 같다’로 띄어쓰기가 바르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㉓의 ‘-는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할지’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붙여 쓴다.

② ㉒의 ‘-마다’는 체언 뒤에 붙어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㉕의 ‘오르내리다’는 ‘오르(어간)+내리다(용언)’의 구성으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로서 한 단어이다.

08 ③ 현대문법-통사론: 높임법

③ ㉔에서 인용 동사 ‘하다’의 주체는 ‘철수’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따라서 ‘하+시(주체높임 선어말 어미)+어(종결어미)=하셔’는 올바른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㉓은 ‘선생님이+(철수가 오다)+하시다’의 구성으로, 서술어 ‘오다’의 주체가 ‘철수’이므로 높이지 않고, ‘오라고’로 표현해야 한다.

② ㉒은 ‘선생님이 너(철수)에게 묻다’의 구성으로, 서술어 ‘묻다’의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물으실’로 고쳐야 한다.

④ ㉕은 ‘너(철수)가 선생님께 묻다’의 구성이므로 서술어 ‘묻다’의 객체가 ‘선생님’이므로 ‘여쭙봐’로 고쳐야 한다.

09 ③ 현대문법-통사론: 필수 부사어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대부분은 꼭 있을 필요가 없는 수의적 성분이지만, 이 중 몇몇은 가끔 필수적으로 있어야 문장의 의미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문장에서 부사어 성분을 생략해도 되면 수의적 부사어이고, 부사어 성분을 생략하면 비문이거나 어색하면 필수적 부사어이다. ③은 부사어 ‘동생과’는 생략하고 ‘나는 종일 집에서 놀았다’로 가능하므로 이때의 ‘동생과’는 수의적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는 부사어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10 ② 현대문법-통사론: 바른 표현

② ㉔은 의미 중복 없이 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참고로, ‘불리어지던’으로 쓰면 ‘부르+이(피동접사)+어지다(통사적 피동)’으로서, 이중피동(피동이 중복)이 되므로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㉓: 비단 나뉘었다 → 비단 나만이 아니었다.

‘비단(非但)’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어이다.

③ ㉕: 다 오지 → 다는 오지 / 아무도 오지

‘다, 모두, 조금, 많이’와 같은 수량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부정문에 쓰이면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의 중의적 표현이 된다. 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체 부정을 할 경우: 손님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부분 부정을 할 경우: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④ ㉔: 발등의 불 → 발등에 불

‘발등’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다면, 부사격 조사 ‘에’가 붙고, 관형어로 쓰인다면, ‘의’가 붙게 된다. 따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와 같이 부사어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처소부사격 조사 ‘에’가 쓰인다. 그리고 ‘발등의 불을 끄다.’와 같이 관형어 ‘발등의’는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이다.

11 ② 비문학-논리적 연결 순서

(나)에서, 색채에 관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설명을 하고, 최근 새로 단장한 친구의 집을 둘러본 경험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은 (가)의 친구의 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에서 (나)처럼 꾸민 친구의 말을 덧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12 ③ 비문학-독서의 방법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감상하며 읽는 것을 감상적 읽기라 한다.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도 감상적 읽기를 할 수는 있으나, 주로 문학 작품에서 특정 인물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그 사람의 처지를 실감하거나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에 공감하는 것, 아름다운 표현에 감탄하는 것 등이 감상적 읽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제시 글은 카슨이 디디티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자 “침묵의 봄”이란 책을 썼다는 것을 설명한 서평(書評)이다. 서평은 논리적인 글이고, ①, ②, ④은 논리적인 글 읽기에 적절한 설명이다.

※출전: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이 쓴 책으로,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을 계기로 살충제의 사용 실태와 그 위험성을 조사하고, 생물학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작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방사는 낙진으로 인해 더욱 절실해지기 시작한 환경 문제의 복잡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더불어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파괴되는 야생 생물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여, 생태계의 오염이 어떻게 시작되고 생물과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19일 경찰공무원 2차

2020. 09.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3 ④ 현대문학-현대시: 표현상 특징

제시 작품은 유치환의 「생명의 서(書)」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극한의 공간인 사막에 가서 자신과 생명의 본연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전체 3연의 작품이다. 1연의 '병든 나무'는 생명의 본질을 구하지 못한 나약한 화자를 의미하며, 생략된 3연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찾고자 하는 진정한 '나(생명의 본질, 가장 본질적인 나)'아 대조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문제에서는 1연과 2연만 제시되어 있고, 아울러 반독되는 시어도 없으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시적 화자는 '나'로서 1인칭의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이 시의 화자는 세속적 현실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구하지 못한 채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으로 떠난다. 그런데 생명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생명이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1연의 '병든 나무'는 현실에서 삶의 본질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다.

※[문13]출전: 유치환, 「생명의 서(書)」

1.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생명파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작품으로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설정하여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비장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아라비아의 사막'을 대결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열사의 공간에서 참된 자아, 본연의 자태를 찾으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음마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성격: 의지적, 관념적, 상징적
 - 2) 제재: 생명
 - 3) 시적 화자: 삶의 회의(懷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
 - 4) 시적 상황: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극한의 공간인 사막에 가서 자신과 생명의 본연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 5) 특징
 - ① 관념적 어휘 사용
 - ②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어조
 - ③ 역설적인 시적 논리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함
 - ④ 단호하고도 웅변조의 말투
 - ⑤ 내적 독백의 다짐과 강한 의지의 표출
 - ⑥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극한 상황을 설정함.
 - ⑦ 사막을 자신과 생명의 본연을 깨우치기 위한 수련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 6) 주제: 생명의 본질을 갈구하는 강한 의지

14 ① 현대문학-현대소설: 표현상 특징

① 제시 작품은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다. 제시 지문은 구보가 전차 안에서 바라본 거리의 풍경과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건의 인과 관계나 인물 간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② 작품 전체적으로는 구보가 정오에 집을 나와 새벽 두 시경에 귀가하기까지의 하루 동안의 여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제시 지문에서는 구보가 탄 전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으로 이어지고, 구보의 의식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전차'와 '경성(京城)'이란 단어를 통해 일제 시대임을 짐작할 수 있

다. '경성(京城)'은 '서울'의 전 지명으로서, 1910년에 일본이 침략하면서 한성(漢城)을 고친 것이다.

④ 심표와 말줄임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주고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한다.

※[문14]출전: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 해제 이 작품은 1930년대 모더니즘의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로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형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분신으로 설정된 작중 인물 구보를 내세워 그 내면 심리를 주로 서술하고 있다. 구보가 뚜렷한 목적 없이 경성 거리를 하루 종일 배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여정은 집에서 출발하여 광고, 종로 화신 상회, 조선 은행 앞, 경성 역, 경찰서 앞, 다방, 종각 뒤의 술집, 카페, 종로 네거리를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구보는 이 여정을 소설 창작을 위한 취재 과정으로 인식하는 한편, 자신의 삶에서 고독을 느끼며 행복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거리의 풍경과 주변 인물을 묘사함으로써 지식인의 쓸쓸하고 고독한 내면의 흐름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중편 소설, 심리 소설, 모더니즘 소설, 세태 소설
 - 2) 성격: 관찰적, 심리적, 묘사적
 - 3)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4) 배경
 - ┌시간 - 1930년대의 어느 날
 - └공간 - 서울 시대
 - 5) 주제: 1930년대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
 - 6) 특징
 - 사건의 인과 관계나 인물 간 갈등보다 구보의 의식의 흐름과 거리 풍경, 주변 인물 묘사에 초점을 둠.
 - 소설가 구보가 집을 나서는 정오부터 집에 돌아오는 새벽 두 시까지의 이야기가 서술의 중심임.
 - 작품 밖의 서술자가 '구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임.
 - 주요 인물인 '구보'의 시선과 생각을 따라가며 내용을 전개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함.
 - 심표를 사용해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함.

15 ④ 고전문학-민요: 종합적 감상

④ 제시 작품은 강원도 정선 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인 「정선 아리랑」이다. 1,200수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전해지는데, 주된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고단한 신세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다.

'골계미(滑稽美)'는 풍자와 해학의 수법으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나 인간상을 구현하며 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미의식으로서, 제시 작품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정선 아리랑」은 강원도 정선 지방에 전승되는 지역 민요이다.
- ② 민요(民謠)는 예로부터 민중 사이에 불려 오던 전통적인 노래로서, 후렴구가 발달했다. 「정선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가 후렴구이다.
- ③ 민요(民謠)는 대개 특정한 작사자나 작곡자가 없이 민중 사이에 구전되어 내려오며 민중들의 사상, 생활, 감정을 담고 있다. 제시 작품은 일상어를 통해 시집 못 간 처녀의 시름과 한탄을 표출하고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9월 19일 경찰공무원 2차

2020. 09. 19.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문15]출전: 민요, 「정선 아리랑」

1. 해제: 강원도 정선 지방에 전승되는 ‘정선 아리랑’은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과 더불어 대표적인 지역 민요이다. 주된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고단한 신세에 대한 한탄과 세태의 풍자 등이다. 본문에 제시된 부분은 특히 시집 못 간 처녀의 시름과 한탄이 담긴 목소리로 삶의 고단함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한(恨)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핵심 정리

1) 갈래 : 민요

2) 특징: 삶의 애환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

6)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자신의 고단한 신세에 대한 한탄

3. 참고 자료

아우라지 ‘정선 아리랑’의 나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두 마을, 즉 여량리와 유천리의 처녀와 총각이 서로 사랑을 하였다. 여량리 처녀는 날마다 싸리골 동백을 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유천리로 건너가 정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 홍수가 저서 물을 못 건너가게 되자 총각을 만날 수 없는 처녀가 이를 원망하여 부른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6 ③ 고전문학-고전소설: 표현상 특징

③ 제시 부분은 어사또가 본관사또의 생일 잔치에 참여하여 수령의 가렴주구는 비판하는 한시를 짓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것다’, ‘이 글 뜻은 ~’ 등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② 어사또가 지은 한시에 드러나 있다.

④ ‘운봉의 갈비를 직신, /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는 사람의 ‘갈비’와 식용의 ‘갈비’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17 ① 고전문학-고전소설: 빈칸 넣기

㉠에는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 ㉡에는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의 뜻풀이가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관사또의 가렴주구를 파한한 작품이므로 문맥상 ①이 가장 적절하다.

18 ③ 한문-한자성어

제시 글은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설명하는 글이다. ‘무릉도원(武陵桃源)’은 중국 후난 성의 한 어부가 발견하였다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낙원이다. ‘별천지(別天地)’나 ‘이상향(理想鄉)’을 비유하는 말로 흔히 쓰인다.

① 안분지족(安分知足: 安 편안 안/分 나눌 분/知 알 지/足 발 족) 자기 분수에 만족하여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함. [유] 안빈낙도(安貧樂道)

② 단표누항(簞瓢陋巷: 簞 소쿠리 단/瓢 바가지 표/陋 더러울 누/巷 거리 항)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

③ 무릉도원(武陵桃源: 武 호반 무/陵 언덕 릉/桃 복숭아 도/源 근원 원) 이 세상을 떠난 별천지(別天地)를 이르는 말.

④ 풍월주인(風月主人: 風 바람 풍/月 달 월/主 주인 주/人 사람 인)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등의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이르는 말.

19 ④ 비문학-내용 파악(일치/불일치 유형)

제시 글은 과거에서 근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서의 방법, 글쓰기의 양상 등 독서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서 가치의 변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둘째 단락의 내용이다. 과거에는 관습적 글쓰기, 근대 이후 전문 작가에 의한 창의적 글쓰기, 오늘날에는 집단적 글쓰기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② 첫째 단락의 내용이다. 과거에는 제한적이었으나, 근대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독서가 보편화되었고, 오늘날에는 전자 기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독서 문화가 더욱 다양해졌다.

③ 둘째 단락의 끝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독자와 작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집단적 글쓰기 등 새로운 글쓰기 양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20 ① 고전문학-고전소설: 표현상 특징

① ‘울대(청나라 장수)가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고, 부인이 계화를 명하여 부적을 던지고, ~ 오랑캐 중으로 불길이 일며~불에 타 죽는 자가 부지기수라. 울대 대경하여 양천탄식’하기 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이다. 역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과 달리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구성 방식이다.

[오답 풀이]

② 부인이 부채로 큰바람을 일으켜 불길을 오랑캐 군사를 물리치는 과장된 표현으로 ‘(박씨)부인’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③ 「박씨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주인공 ‘박씨 부인’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역사 군담, 영웅 소설이다.

④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치욕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함으로써 병자호란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 패배 의식을 극복하려는 것이 이 작품의 창작 의도이다.

※[문20]출전: 작가 미상, 「박씨전(朴氏傳)」

1. 해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가, 연대 미상의 역사 군담 영웅 소설이다. 역사적으로 청나라에 대한 치욕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함으로써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을 위로하고 있으며, 여성 영웅의 등장을 통해 남성들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가부장적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2. 핵심 정리

1) 갈래: 고전소설, 역사소설, 군담소설, 영웅소설, 전쟁소설,

2) 성격: 영웅적, 전기적, 역사적

3) 배경: 시간(조선시대, 병자호란)

4) 제재: 병자호란

5) 주제

•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표면적 주제)

•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이면적 주제)

3. 창작 의도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허구적 내용을 가미한 역사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등장인물인 박씨는 허구적 인물로, 실존 인물인 이시백의 아내로 등장한다. 박씨의 활약상을 통해 병자호란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 패배 의식을 극복하려는 것이 이 작품의 창작 의도이다.